

**2020년 통일기반구축사업 여성연구소
결과보고서**

-통일여성학 기반 구축 사업-

여성연구소

제 출 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여성연구소 2020년 통일기반구축사업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월

연구기관: 여성연구소
연구책임자: 권오남 (교수)
연구참여자: 정현주 (부교수)
 현인애 (초빙교수)
 황진태 (선임연구원)
 전원근 (연구교수)

결과보고서 요약

| | | | |
|--------------|-----------------------|------------|-----------|
| 사업기관 | 여성연구소 | | |
| 사업명 | 통일여성학 기반 구축 | | |
| 사업책임자 | 성명 | 소속 | 직위 |
| | 권오남 | 여성연구소 | 교수 |
| 사업기간 | 2020.3.3. ~ 2021.1.31 | 사업비 | |

1. 사업 목적

- ‘통일여성학’ 이라는 여성학적인 관점을 통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지향하는 학제적 연구를 통해 통일시대 여성학의 기여를 도모하고자 함
- ‘통일여성학’ 이라 함은 여성학적 관점과 이론, 방법을 통해 탈분단 및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을 지향하는 학제적 연구를 지칭함
- 통일여성학의 학문적 정립과 정책적 활용을 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2020년 사업을 통해 연구주제 발굴, 학문후속세대를 포함해 통일여성학 연구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1. 사업 내용

- 세미나 개최: 분단의 아이콘인 접경지대를 학술적으로 사유하고 여성학적 개입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본교 대학원생 등 다양한 학문후속세대의 참여 속에 여름방학 세미나로 개최되었으며 경계이론, 이주와 국경, 기술과 신체통제 및 국경통치의 변화 등을 다룸.
- 학술대회 참여: 공동연구원의 연구결과 발표(비판사회학대회, 아시아연구소 콜로키움)
- 초청강연: “북한·여성을 말하다” (현인에, 이화여대), “젠더와 인신매매의 지정학” (최은영, 한양대)-북한의 젠더관계 및 북한여성 현황에 대한 강연과 탈북여성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인권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강연을 통해 통일여성학의 연구주제를 탐색하고 교내 학문후속세대 및 연구자들에게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 환기하고자 함

1. 사업 성과

- ‘접경 세미나’를 통해 연구주제 탐색 및 연구 저변 확대
- 학술대회 참여로 학계에 관련 주제의 관심과 이해 증진: 퀴어지정학, 개성공단에 대한 젠더관점 연구 등 기존 학계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연구주제 개척
- 2회의 초청강연을 통해 교내에 기반이 취약한 통일여성학 연구를 교내 학문후속세대, 연구자들에게 소개. 특히 여성연구소 연구자들에게 후속 연구에 대한 동기 부여
- 통일여성학 기획연구를 통해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논문 출판을 지원함

< 목 차 >

| | | |
|-------|--------------------|----|
| 제 1 장 |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4 |
| 제 2 장 |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8 |
| 제 3 장 | 예산집행결과 | 15 |
| 제 4 장 | 사업성과 | 17 |
| 제 5 장 | 기타사항 | 20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사업 배경

□ 개요

- 사업명: 통일여성학 기반 구축
- 기관명: 여성연구소
- 사업비:

□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기존의 여성학은 ‘여성’과 ‘젠더’문제를 통일의 맥락에서 포착하지 못함. 그 이유 중 하나가 통일학에 대한 협소한 이해에 기인. 단순히 남과 북의 정치적 통합 로드맵이라는 협의의 통일학 개념을 벗어나 냉전과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동북아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접근이라는 광의의 개념을 여성학의 기존 아젠다와 접목시키면 연구의 상호확장을 가져올 수 있음.
- 그간 여성학 및 젠더연구 분야에서 주로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이주’의 관점에서 탈북여성이라는 특수한 위치성을 지닌 여성주체의 경험과 함의를 도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지만 이를 분단과 냉전체제라는 상위구조와 접목시키거나 통일과 평화라는 맥락으로 확장시키는 학제적 연구가 부족했음.
- 또한 북한연구는 자료접근이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접근가능한 자료의 확보 및 공유, 연구자 네트워크의 구축이 특히 필요함. 여성학과 통일학의 접목은 이러한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저변 확대가 절실히 요청되는 분야임.

○ 목적

- ‘통일여성학’이라는 여성학적인 관점을 통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지향하는 학제적 연구를 학술적으로 정립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통일여성학의 연구주제, 목적, 방법, 비전 등 한국 여성학의 하위분과로서 통일여성학의 위치를 정립하고, 연구주제를 발굴하는 기획연구, 세미나 등을 추진하고자 함.
- 통일여성학 연구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국내 학술대회, 기관, 핵심연구자 등을 파악하여 연구플랫폼을 조성하고 기초자료 조사 및 DB를 구축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학술적 모임들을 통해 북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

술적으로 의미있는 토론 및 후속연구가 가능하도록 함.

2. 사업 내용

□ 사업 추진 내용

○ 세미나를 통한 연구주제 탐색 및 연구 저변 확장

- 통일과 여성학에 관심있는 교내외 학생 및 연구자들에게 관련 주제를 탐색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통일연구와 여성학의 접목이 용이하고 연구확장 가능성이 풍부한 주제를 선정: ‘접경과 경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첫 번째 주제로 삼음. 경계이론, 이주와 국경통치 레짐, 기술발달과 신체통제 및 경계의 개념 변화 등 최신이론을 탐색하고 남북의 접경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 등 냉전과 탈냉전 체제하의 경계정치에 대한 보편적 통찰을 이끌어내는 토론을 함.
-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과 상호교감을 통해 향후 관련 세미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함.
- 새로운 연구주제 발굴 및 연구 저변 확대,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업으로서 세미나를 적극 활용할 예정.

○ 초청강연회를 통한 학술교류

- 제1회 통일여성학 초청강연회(“북한·여성을 말하다”): 북한의 젠더관계는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이지만 여성학 분야에서 반드시 파악해야 할 주제임. 탈북학자인 현인에 교수를 초청하여 북한의 젠더관계의 현황 및 의미, 최근 변화에 대한 생생한 강연을 들음.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북한의 젠더관계의 세세한 현황뿐 아니라 그러한 권력관계의 구조화를 가져온 원인들에 대한 학문적 분석에 대해서도 이해를 높임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의 지평 확대를 제시함.
- 제2회 통일여성학 초청강연회(“젠더와 인신매매의 지정학”): 두 번째 강연 역시 흔치 않은 주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인신매매 및 인권 프레임에 대한 미국부무 자료 분석 등 접하기 어려운 데이터 분석 제시. 이를 통해 냉전체제가 가져온 남과 북의 젠더관계를 지정학적 맥락에서 성찰함으로써 연구주제의 확장 및 학제적 접근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제공함.

○ 통일여성학 기획연구를 통한 논문출판 지원

- 통일여성학의 신선한 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연구자를 섭외하여 공동연구원으로 위촉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최소 KCI 논문 출판 1편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집필세미나 형태의 비대면 모임 및 단톡방에서의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주제공유 및 상호 피드백을 함으로써 단순히 논문 출판 이상의 학술교류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의 효과를 도모하고 함.
- 현재 연내 출판을 목표로 4편의 논문 작성이 진행 중.

□ 일정별 추진 사항

| 사업종류 | 일 정 | 추진 내용 |
|------------------------------------|-------------------------------|--|
| 세미나 (zoom) (평균 12명 내외 참석) | 2020.07.16.(금) 09:30-12:00 | <이영민 외 역, 2018, 국가, 경계, 질서, 푸른길> 발제 및 토론 |
| | 2020.07.22.(수) 09:30-12:00 | <이영민 외 역, 2018, 국가, 경계, 질서, 푸른길> 발제 및 토론 |
| | 2020.08.06.(목) 09:30-12:00 | <Wastl-Walter, Doris, 2011, <i>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Border Studies</i> , Ashgate> 발제 및 토론 |
| | 2020.08.20.(목) 09:30-12:00 | <Wastl-Walter, Doris, 2011, <i>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Border Studies</i> , Ashgate> 발제 및 토론 |
| | 2020.08.27.(목) 09:30-12:00 | 향후 연구주제 발표 -연구주제 1: 발전주의 예외공간으로서 기지촌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 냉전의 접경지대 파주를 사례로 -연구주제 2: 접경지역에 대한 다양한 접근 |
| 학술발표 | 2020.10.24.(토) | 비판사회학대회 혐오 기획세션 발표 : “혐오의 지정학-냉전분단체제와 호모포비아”(공동연구원 전원근) |
| | 2020.12.18.(금)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콜로키움 발표 : “젠더화된 노동공간으로서 개성공단”(공동연구원 정현주) |
| 초청강연 | 2020.11.25.(수) | “북한·여성을 말하다”- 북한 젠더관계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초청강연(공동연구원 현인애) |
| | 2021.01.13.(수) | “젠더와 인신매매의 지정학”- 탈북여성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인권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최은영, 한양대) |
| 저술지원 | 2020.11.25.(수) | 1차 집필진 모임: 주제 및 원고 중간점검 |
| | 2020.12.23.(수) | 2차 집필진 모임: 연구 draft 발표 |
| | 2021.1.15.(금) | 3차 집필진 모임: 변경사항 점검, 발표저널 논의 |

□ 참여 인력

가) 책임자

| 성명 | 대학 | 학과 | 직급 |
|--------|------|-------|------------------|
| 권오남 | 사범대학 | 수학교육과 | 교수 |
| 연구소(원) | 구내전화 | 휴대전화 | 이메일 |
| 여성연구소 | 7894 | | onkwon@snu.ac.kr |

나) 주요 참여 인력

| 성명 | 소속 | 직급 | 이메일 |
|-----|---------------------|-------|-------------------------|
| 정현주 |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 부교수 | jung0072@snu.ac.kr |
| 현인애 |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 초빙교수 | hoil56@naver.com |
| 황진태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선임연구원 | dchjt@snu.ac.kr |
| 전원근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 연구교수 | wonggui@sookmyung.ac.kr |
| 이호숙 | 여성연구소 | 객원연구원 | neul19@snu.ac.kr |
| 김원희 | 환경대학원 | 학생 | kwh6788@snu.ac.kr |
| 주연 | 환경대학원 | 학생 | jcmgp@snu.ac.kr |
| 김민정 | 여성학협동과정 | 박사연구생 | dasim901@snu.ac.kr |

제2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1. 세미나를 통한 연구주제 탐색 및 연구 저변 확장

○ 접경 세미나

- Border theories에 대한 이론서 발제 및 토론

이영민 외 역, 2018, 국가, 경계, 질서, 푸른길.

Wastl-Walter, Doris, 2011,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Border Studies*, Ashgate

- 하위주제: 접경의 시대적, 공간적 변화, 국경통제의 정치, 이주거버넌스에서 국경의 의미 변화, 이주의 여성화와 젠더화된 통치 레짐 및 이주여성의 인권, 기술변화와 신체 및 경계의 변화, 국경통치의 기술적 전환을 둘러싼 논쟁

○ 연구주제 확장

- 접경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참여자 중 2인의 향후 연구주제 발표

(가) 정현주: 발전주의 예외공간으로서 기지촌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 냉전의 접경지대 파주를 사례로

(나) 백일순: 접경지역에 대한 다양한 접근

- 연구주제 발표를 통해 세미나와 연구주제 발굴 연계를 학문후속세대들에게 제안하고 이들에게 학술적 상상력 제고 및 동기부여

- 세미나 구성원들에게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향후 연구주제 추진을 구체화 함

2. 저술지원을 통한 논문출판 지원

○ 주제 1 : 젠더화된 노동공간으로서 개성공단 (정현주, 환경대학원)

주요 내용 요약: 기존의 연구들이 개성공단을 서술하는 방식은 개성공단을 하나의 등질적인 추상공간으로 상정하고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단순히 남측, 또는 북측 사람들로만 묘사해 왔다. 즉 개성공단을 구성했던 55,000여 명의 노동자들은 단순히 북한 사람으로 추상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70% 이상이 '여성' 노동자였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기사나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개성공단을 소개하는 신문기사 등에서 개성공단을 대표하는 이미지로서 화려한 패션을 선보이는 신식 여성, 또는 재봉틀 앞에 앉아있는 전형적인 여성 노동자를 종종 내세우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은 시각적으로 대상화된 여성성의 재현이거나 노동의 젠더분업에 대한 무의식적 재현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즉 전통적으로 여성이 소환되고 재현되는 공식을 충실히 따랐을 뿐 여성화된 공간으로서 개성공단에 대한 젠더화된 관점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된 산업공간으로서 개성공단은 단순히 여성이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다(물론 양적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보다는 철저히 젠더화된 노동 분업의 현장이었다는 점, 그러다 보니 여성화된 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태계를 갖추어 나간 공간이었다는 점, 무엇보다 노동을 통한 젠더관계의 변화 나아가 북한 사회의 변화를 가능케 볼 수 있는 실험장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다. 따라서 개성공단을 단순히 여성들이 많이 근무해서 어딜 찍어도 북한 여성들이 다수의 군중으로서 사진 프레임에 들어오는 장소로만 재현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남북경협 사업이 노동의 젠더분업 및 생활공간의 젠더화에 입각한 설계에 기반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성공단이라는 탈냉전의 ‘예외공간’(Ong, 2006; 박배균, 2017; 이승욱, 2016)이 젠더화된 공간이었다는 사회적, 학술적 쟁점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연구질문을 던진다. 첫째, 여성학계에서 주로 제기된 탈북여성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를 제외하고 냉전과 탈냉전의 정치경제 담론에서 그간 젠더화된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남북 및 분단체제를 젠더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는 철저히 학문경계의 벽에 갇혀서, 주로 이주, 탈북, 문화(북한 사회문화의 변동) 등의 주제에 한정되어 왔다. 반면 정치, 외교, 경제 논의는 무성적인(gender-blind) 관점을 지향하는 듯 하지만 사실상 젠더화된 현상을 외면함으로써 남성중심적 접근을 표방해 왔다. 그러나 탈북하여 이주하는 사람들도, 장마당이라는 새로운 북한 사회문화경제를 일구어가는 사람도, 개성공단의 노동자도 사실상 압도적으로 여성이다. 탈북민과 개성공단 노동자 모두 여성이 70% 이상이라는 유사한 수치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현상들을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북한의 젠더관계 및 젠더화된 노동분업이며, 북한 사회 및 분단체제의 큰 변화를 상징하는 현장의 주체가 여성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개성공단을 남북경협의 장, ‘통일의 실험장’이라는 단일한 재현을 넘어서 노동의 젠더분업과 젠더관계의 역동을 매개하는 다층적 공간으로서 해석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의 여성노동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개성공단 여성 노동과 노동의 젠더분업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은 크게 1) 제 3 세계 특구와 여성 노동에 관한 비판적 연구와 2) 발전국가 여공 담론, 3) 북한 여성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라는 다소 상이한 분야의 접근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예상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서구 중심의 경제특구와 여성착취 담론이나 한국의 여공담론 모두 개성공단 여성 노동을 이해하는데에 유용한 개념과 사례를 제공하지만 개성공단 여성 노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관점이 있으며 그 핵심에는 북한이라는 봉건적 사회주의 시스템이 노동의 젠더분업에 개입하는 양상에 대한 이해이다. 이를 위해서 60년대 이후 정립된 북한식 여성담론 및 가부장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

에 대한 연구를 향후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남과 북측 모두 공공 에이전시가 중개역할을 함으로써 자본가에 의한 직접적인 착취가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인건비 일괄 책정, 노동자 수급 등) 등 개성공단의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분석은 제 3 세계 경제특구의 여성 노동자 착취 개선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과 북의 교류사업이라는 정치논리가 상위 스케일에서 작동했기 때문에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가 확립될 수 있었으므로 향후 남북협력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주제 2: 북한 여성의 시장 활동과 젠더 질서 전망-체제전환국과 비교 (현인애, 이화여대 북한학과)

주요 내용 요약: 90년대 초 북한에서 국가 경제와 배급 체계 붕괴로 여성이 주체가 되어 시장을 형성하고 가게를 책임지는 상황이 전개된 때로부터 30여 년이 되어 오고 있다. 북한 여성들은 가게뿐 아니라 각종 명목의 동원을 통해 국가재정을 담당하고 있어 국가 운영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북한 여성들의 시장 활동은 사회적 지위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여성들의 시장 활동이 북한의 젠더 질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90년대 사회주의국가들에서는 체제 전환으로 시장이 도입되었고 그로 인해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체제전환국들의 젠더 불평등 지수(GII)와 젠더 갭 지수(GGI) 등이 개선되었다. 북한의 시장과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을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다 같이 사적 소유에 기초한 경제체제로서 공통점이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전환국들의 뒤를 느리게 따라가는 셈이다. 체제전환국들에서 여성 실천과 북한 여성들의 경험을 비교 분석하면 북한 여성들의 시장 활동을 젠더적 시각에서 그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으며 그 미래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북한과 연계가 많았거나 처지가 비슷한 국가인 러시아, 중국, 베트남의 사례와 북한을 비교하려고 한다. 연구범위는 시장경제로 전환하던 초기인 1980년~2000년대와 북한의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를 비교 고찰하려고 한다. 북한 시장의 변화는 체제전환국의 변화에 비해 매우 느리므로 체제전환국의 초기와 대응될 것이다. 대조국가로는 러시아, 중국, 베트남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 체제전환국에서 사회주의 시기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어떠하였는가?
- 체제전환 후 자본주의 시장 질서 하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어떠하였는가?
- 포스트 사회주의의 젠더 질서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인가?
- 북한의 여성의 시장 활동 상황은 어떠한가?
- 체제전환국과 북한을 비교하면 여성들의 시장 활동의 여성학적 의미는 무엇이며 이는 앞으로 젠더 질서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예상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노동은 젠더 위계를 변화시킨다. 그러나 노동이 젠더 질서를 변화시키는 과정은 구체적 실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엥겔스는 사적소유의 철폐로 결혼에서 불평등이 제거되고 여성의 직장진출과 가계 부양자로서의 역할로 남성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고 보았지만 실제로 북한에서 사회주의 시책이 실시되는 시기에 여성의 지위는 높지 않았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성을 보였으며 특히 북한에서는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에 비해서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가가 주민들의 가계를 포기하면서 각자 알아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했다. 국가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책임지지 않으면서도 남성들에게는 직장출근을 폭력으로 강요했고 가계는 전적으로 여성들의 몫으로 되었다.

여성들은 이에 대해 국가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다름없이 그에 순응했지만 그 과정에 의도치 않은 정체성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북한에서 여성은 노동자, 어머니보다 경제적 능력이 더 중요해졌고 이것이 여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되었다. 북한에서 시장이나 여성의 시장활동이 체제전환국들에 비하면 매우 미약하지만 북한 시장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북한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체제전환국에 비하면 더 열악하다. 그러나 체제전환국들의 일반상황에 비해보면 북한에서 시장활동은 여성들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것보다 하락시키는 면이 더 크다. 원래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사회주의시기 국가가부장제도가 가장 강했다. 경제발전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여성들의 시장활동 규모도 매우 영세하다. 문맹률은 매우 낮으나 여성의 교육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국가의 시장 통제정책이다. 체제전환국은 시장을 허용하였으므로 시장활동을 장려하지만 북한은 아직 자본주의시장경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여성들이 통제와 수탈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여러 가지 부정적 역할을 내포하고 있지만 총체적으로 체제전환국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서서히 상승하는 현실은 북한여성들의 시장활동이 지위와 역할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 주제 3: 여성주의적 지리과 통일교육을 위한 인스타그램 활용방안 모색 (황진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주요 내용 요약: 본 연구는 여성주의적 지리과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자료이자 교육매체로서 인스타그램의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평화교육으로서 지리과 통일교육은 새로운 북한자료 확보와 학습자의 흥미와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다. 최근 해외학계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교육적 효과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학습자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며 친숙하게 여겨지는 SNS를 활용한다면 학습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자료, 구술자료와 같은 텍스트 기반 자료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미지 기반 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북한의 공간을 탐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학습자들의 능동적 참여가 기대되는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북한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면 지리과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매체로서 주목할 지점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여성주의 지리학의 시각을 통일교육에 접목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평화교육으로서 지리과 통일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젠더중립적이지 않은 인스타그램의 매체적 특성은 ‘여성주의적’ 지리과 통일교육의 강점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론논의에서는 먼저 평화교육으로서 지리과 통일교육을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매체 발굴 필요성을 제안하고, 최근 북한연구에서 새로운 방법론으로 제안된 인스타그램을 교육매체로서 활용 가능한지를 논한다. 나아가 평화교육으로서 지리과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여성주의 지리학의 시각이 결합된 여성주의적 지리과 통일교육을 개념화가 필요하며, 북한연구와 통일연구에서의 젠더 중립적 시각이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을 정립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논증하면서 여성주의적 시각은 본질적으로 통일교육과 긴밀히 연계되었음을 밝힌다. 이상의 이론 논의를 바탕으로 예시의 차원에서 교육자료로서 인스타그램의 활용 가능성을 간략히 검토한다.

예상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화교육으로서 지리과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통일/평화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이 절실해 지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교육자료 및 매체가 더욱 감한 필자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의 측면에서 인스타그램을 주목했다.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접근하게 되는 북한여성 자료는 기존 텍스트 자료에 비하여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학습자의 입장에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남남북녀 등)을 해소하고, 보다 다면적으로 북한을 이해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단순히 북한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 유형으로서 여성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통일과 관련하여 남한 사회의 성찰의 필요성도 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 주제 4: 한반도 퀴어 지정학에 대한 탐색적 연구-북한의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전원근,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

주요 내용 요약: 이 연구는 퀴어 지정학의 관점에서 북한의 호모섹슈얼리티 담론이 정치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배치되어 있으며,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한 북한의 이해 방식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리고 북한 사회의 호모섹슈얼리티의 존재양상에 대해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북한 사회에서 호모섹슈얼리티는 내부와 외부, 민족과 제국, 순결과 오염을 나누는 기준점으로 이용되며, 이는 국제사회의

인권 규범과 충돌하면서도 남한의 일부 이성애규범적 통일 담론과 맞닿아 있다. 북한은 외부 세계와의 접점을 통해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 방식을 형성해왔으며, 그러한 예로 제일조선인 귀국사업과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에서 나타나는 호모포비아 담론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은 기층 사회에서 나타나는 호모섹슈얼리티의 여러 요소와 수행 양상들이 공식적 담론의 층위와는 단절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북한에 대한 연구가 남한 사회에서 퀴어 연구가 부딪히는 문제들과 맞닿아 있으며, 한반도 퀴어 연구의 과제를 (탈)냉전분단체제의 과제와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볼 것을 요청한다.

예상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먼저 1) 한반도의 호모포비아는 냉전분단체제와 결합되어 있으며, 그것은 적아식별과 내부와 외부, 순수와 오염, 민족과 제국, 도덕과 비도덕,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의 구분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모섹슈얼리티나 성소수자/퀴어 이슈는 진보와 보수, 남과 북이라는 분단선을 가로질러 형성되는 또 다른 축이며, 여기에 국제적 LGBTIQ 인권규범의 강화, 이웃국가들의 노력, 시민사회의 국제적 연대와 같은 요소들이 이 선을 또 다시 분할하고 있다. 그리고 2) 통일한반도에 대한 상상의 일부는 이성애규범적 통일담론의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퀴어 지정학적 비판 없이는 이러한 상상들은 진보/보수, 남/북을 가로질러 자연스럽게 공명하는 태제가 될 수 있다.

또한 3) 북한은 완전히 고립된 ‘섬’과 같은 곳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외부세계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러한 조건들 속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관념과 실천들이 구성되어 왔다는 점도 중요하다. 북한 당국은 호모섹슈얼리티를 사회통제와 정치적 비난을 위한 도구로 이용해왔다. 그것들은 북한이 분단과 냉전의 격화라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탈식민 국가를 만들어왔던 역사적, 정치적 맥락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이해 방식이 북한 당국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실천들은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한 상상이나 호모포비아가 사회적-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근원적이라기보다 가변하는 것임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4) 북한의 호모섹슈얼리티는 공식적 담론의 층위와 기층 사회 간의 단절 또는 분리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남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소수자의 비가시화는 그 자체로 정치의 결과이자 현실정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은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노력들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한 사회 속에서 호모섹슈얼리티가 인식되고 존재하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이 연구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기존의 역사·정치적 구조와 권력의 거시적·미시적 질서들이 호모섹슈얼리티와 혐오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퀴어 지정학의 문제의식을 요청하는 이유는 혐오를 자연화·객관화하고 그것을 재생산하는 기존의 지정학적 관념들을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위함이다. 젠더와 섹슈얼리티, 그리고 퀴어가 일상에서 국제관계에 이르는 권력의 질서와 어떻게 교차되고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는 혐오의 정치와 냉전적 진영의 정치를 파

훤하기 어렵다. 우리는 지금-여기의 퀴어 연구를 한반도의 탈식민과 탈냉전의 과제들과 연결된 과제로 볼 필요가 있다.

제4장 사업성과

□ 사업 성과 (구체적 내용 기술)

- 성공적인 ‘접경세미나’ 운영을 통해 통일여성학 세미나 기획시리즈를 정례화할 수 있는 기반구축
 - 총 5회에 걸쳐 평균 12명 내외의 연구자 및 학생들이 참석한 여름방학 세미나는 전면 비대면으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호응과 열띤 토론 유도.
 - 매 회 성실한 발제에 이어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서구의 경계이론에 대한 내용 학습을 넘어 이를 분단체제와 여성학적 관점에서 접목하려는 진지한 연구 질문이 활발하게 제시됨.
 - 강독과 토론에 그치지 않고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본 사업 공동연구원과 연구진이 연구주제를 발표함으로써 세미나와 연구의 유기적 연계를 제시함
 - 학문후속세대와 소통함으로써 연구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이 향후에도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학술대회 참여를 통한 성과확산
 - 2020.10.24. 비판사회학대회: “혐오의 지정학-냉전분단체제와 호모포비아”
 - 2020.12.18. 아시아연구소 콜로키움: “젠더화된 노동공간으로서 개성공단”
 - 본 사업의 공동연구원인 전원근, 정현주가 참석한 비판사회학회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콜로키움 학제적 학술교류의 장으로서, 통일 및 평화학의 범주를 넘어서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관련 주제를 다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통일과 젠더연구를 다양한 학문사회에 소개함으로써 연구의 학제적 접목 및 확장이라는 성과를 가져옴.

- 초청강연을 통한 학술교류 및 연구자 저변 확대
 - 2020.11.25. ‘북한 여성 이야기’ (현인애, 이화여대 북한학과)
 - 북한의 시대별 여성정책과 이에 따른 노동관계 및 젠더관계의 변화, 김정은 정권 이후 최근 여성정책 및 여성상의 변화 등 북한 사회의 젠더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강연.
 - 2021.01.13. ‘젠더와 인신매매의 지정학: 북한 관련 미 국무부 인신매매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최은영,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소)
 - 미 국무부 보고서 등 국제사회의 북한여성 인신매매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냉전질서가 북한여성 재현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해석하고, 이러한 관점이 북

한 여성 당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장기간의 북중 접경지대 탈북여성 인터뷰 및 생애사 연구를 통해 비교하는 강연. 향후 탈북여성과 이주, 접경지대, 냉전의 지정학과 북한 젠더관계 연구 등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 통일여성학 기획연구 4편 (KCI 논문 4편으로 연내 출판 예정)

- 논문 1) 젠더화된 노동공간으로서 개성공단(정현주, 서울대 환경대학원): 아시아여성연구 60권 1호(2021년 4월)에 게재 목표
- 논문 2) 북한 여성의 시장 활동과 젠더 질서 전망-체제전환국과 비교 (현인애, 이화여대 북한학과): 북한연구학회보 25권 2호(2021년 12월)에 게재 목표
- 논문 3) 여성주의적 지리과 통일교육을 위한 인스타그램 활용방안 모색 (황진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7권 1호(2021년 2월)에 게재목표
- 논문 4) 한반도 퀴어 지정학에 대한 탐색적 연구-북한의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전원근,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 아시아리뷰 11권 3호(2021년 12월)에 게재 목표

□ **관련분야 기여도**

○ 기존 경계 담론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세미나를 통해서 기존에 존재했던 경계 담론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분석함으로써 경계 담론이 분단된 한국 사회에 필요한 주제이며, 통일을 대비하는 때에 중요한 이론임을 제시함.

○ 논문 게재(예정) 및 학술대회 참여를 통해 통일학과 여성학의 학문적 접합 및 새로운 연구주제 개척을 선도함.

- 통일여성학 연구를 통해 기존의 협의의 통일학 개념을 벗어나 냉전과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광의의 개념을 여성학의 기존 아젠다와 접목시켜 학제적 통합과 통일연구의 확장에 기여함.

○ 초청 강연을 통해 통일여성학 연구의 주요 허브로서 기여함.

- 북한에서의 여성 정책과 여성상 등을 강연을 통해 듣고 청자의 관심을 높여 추후 북한 여성과 관련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함을 시사함.
- 또한 인신매매에 대한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한 강연을 통해 탈식민, 탈냉전의

인신매매 담론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

- 통일여성학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향후 학술적, 정책적 확장성에 기여하고자 함.

□ 대표 사업 실적

- 게재예정 논문 4편

□ 성과 자율 지표

| 성과지표명 | 당초 목표 | 실적 | 달성도 (%) | 가중치 (%) |
|-------|-------|----|---------|---------|
| 초청강연회 | 2회 | 2회 | 100 | 20 |
| 세미나개최 | 8회 | 5회 | 63 | 20 |
| 논문게재 | 4건 | 4회 | 100 | 40 |
| DB구축 | 1건 | 0건 | 0 | 5 |
| 보고서 | 1건 | 0건 | 0 | 5 |
| MOU | 1건 | 0건 | 0 | 10 |
| 계 | | | | 100 |

제5장 기타사항

□ 사업평가

○ 사업의 적절성

- 사회적으로 젠더감수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과 평화학에서 젠더관점의 연구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음.
- 기존의 젠더관점의 연구가 이주와 탈북여성이라는 한정된 논의의 틀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면 분단과 냉전체제, 노동, 접경지대 등 사회과학의 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북한·통일연구를 여성학적 관점에서 접목하는 시도가 절실히 요구됨.
- 2020년 통일여성학 기반구축 사업은 이렇게 증가하는 필요성에 비하여 현재 교내 연구기반은 너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됨. 주류 북한·통일연구 담론에서 여성학의 주변화를 상쇄하고 열악한 교내 연구기반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연구주제 발굴 및 학술교류 도모를 기획했다는 점에서 그 의도와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의 효율성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짐. 특히 해외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북한자료센터를 통한 자료구축 사업은 아예 좌초됨(해외 네트워크, MOU, DB구축 및 북한여성연구 자료 보고서).
- 이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활동에 치중했고 하반기 이후 원활해진 비대면 소통에 힘입어 세미나, 학술대회 참여, 초청강연회 등을 무사히 완료함.

○ 사업의 영향력

- 학술대회참여 및 논문발표를 통해 연구성과의 학제적 확산
- 세미나를 통해 학문후속세대에게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미흡한 연구기반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완하고자 함
- 초청강연을 통해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및 향후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의 기반을 마련함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코로나 19로 인한 북한자료센터의 휴관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좌초되었고 자료접근이 제한되어 북한의 여성관련 자료 보고서 작성도 어려워짐 → 현 상황이 지속되는 한 북한자료센터 및 기타 공공기관 이용, 인터뷰 등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업주체의 신규 발굴이 필요함.
- 코로나 19 문제로 연변대학 여성연구센터 방문 및 해외 학자 초청강연이 취소됨 → 해외 교류가 가능해 지는 시점에서 재추진할 예정.
-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빚어진 초기 혼란 및 부적응으로 인해 상반기 동안 사업진척이 거의 안 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대체사업 발굴, 대안적 소통(비대면) 활용 등으로 향후 보완가능할 것으로 보임.